

## 특집호

**2023 이슈 & 포커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2기 장인화 회장 취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3 BSC 뉴스**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2023. 12 Vol. 61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스포츠**  
골프 / 스포츠 / 레저 업종  
10% 할인

**GYM**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할인

**의료**  
병원 / 약국 업종  
10% 할인

**생활**  
간편결제 / CU / GS25 / 스타벅스  
5% 할인

**학원**  
학원 업종  
5% 할인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3. 12 Vol. 61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61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중욱,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QR code and Instagram link: @Instagram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3 이슈 & 포커스

- 06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2기 장인화 회장 취임
- 10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 14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18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20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22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26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 30 제18회 여성체육대회
- 32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17

2023 BSC 뉴스

- 36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
- 37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 38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 39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지도 동영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수상
- 40 제34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 41 2023년 회원단체직무연수 개최
- 42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 43 부산광역시체육회-대한체육회,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44 제4회 부산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개최
- 45 2023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 46 부산체육사랑카드 발행 협약 및 1호 카드 전달식
- 47 2023 레크리에이션 교실 진행
- 48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 49 2023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50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51 제12회 부산초·중학생 육상 챌린지대회 개최
- 52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 초·중·고 학교운동부 및 대학생활체육동아리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 5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 54 부산광역시체육회-호찌민시 스포츠교류 MOU 체결
- 55 2023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 개최



36



53

A soccer player in a white jersey and yellow shorts is dribbling a soccer ball on a green field. The player is in the foreground, and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other players and a goal. The image has a light green overlay.

# 2023 이슈 & 포커스

##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2기 장인화 회장 취임

2022년 12월 15일 실시한 제27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에서 장인화 회장이 당선되며 다시 한번 부산광역시체육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 2월 17일 취임식을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선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 민선2기 제27대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취임식



### 부산시민, 체육인과 함께

제27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는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로, 총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인프라 구성, 지역 상공계와 연계한 회원단체의 안정적 운영 도모,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진행된 투표에 80퍼센트가 넘는 선

거인단이 참여하였으며, 총 유효표 382표 중 251표(65.7%)를 얻은 장인화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시민, 체육인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체육 발전에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03년부터 부산체육과 인연을 맺은 장인화 회장은 부산광역시육상연맹 부회장,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으로 체육계에서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경영인으로서 쌓은 30년간의 역량으로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임기를 지낸 장인화 회장의 앞으로 4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속적인 변화의 물결 약속**

장인화 회장은 재선 성공의 이유로 '변화의 물결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체육인들의 마음'을 꼽았다. 이렇듯 체육인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뛸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1기가 재정적·제도적 안정을 찾는 시기였다면 민선2기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잡힌 운영과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참고로, 민선1기 당시 장인화 회장은 운영이 아닌 경영의 체육회, 체육회 예산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 체육 전문인 일자리 확대, 학교 체육의 자율성 보장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경영다운 경영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내 4개의 체육시설 운영, 지역 기업인들의 참여를 이끄는 등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반과 더불어 지난해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와 소통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화 회장은 2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제공돼야 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돼야 한다"는 말과 함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선포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민선1기 업적**

- 국비 공모사업 '스포츠과학센터'를 유치하여 전문 선수는 물론 체육 꿈나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특수 법인'으로 출범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각종 공모 사업 수탁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함
- 16개 구·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관내 실업팀 선수와 학교 지도자 처우를 개선함

**민선2기 역점 사업 및 공약**

-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보
-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활용
- 국민체육센터 추가 조성 및 낙동강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실버 스포츠 시설 조성
-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및 운동선수 기피로 인한 학생 선수 발굴의 어려움 극복
-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챌린지 대회 확대 및 지속적인 후원금 유치
- 예산을 증액하여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및 구·군체육회와 종목단체의 근무 환경 개선

# 19th Asian Games Hangzhou 2022

5년을 기다린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가 9월 23일(토)부터 10월 8일(일)까지 16일간 열전을 벌이며  
상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애초 예정보다 1년 늦게 개최되었지만, 대회의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 #다채로운 종목 #색다른 재미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는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5개국 1만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40개 정식종목, 481개 경기가 열렸다. 시범종목이었던 'e스포츠'는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 및 2024 파리 올림픽대회 정식종목인 '브레이킹'도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바둑'은 13년 만에 다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남·여·단체전 등 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이 외에도 세팍타크로, 우슈, 주짓수, 카바디, 크리켓 등의 종목도 열려 역동적인 스포츠의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대회 결과 개최국 중국은 201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종합 1위를, 일본이 2위, 대한민국이 3위를 차지하였다.

### #대한민국 선수단 #종합 3위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우리나라는 선수, 코치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140명이 선수단을 파견하여 39개 종목에 출전하였다. 대회 결과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를 획득, 총 190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하였다. 당초 목표한 금메달 50개 달성은 이루지 못했으나, 일본과 금메달 격차를 10개 이내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체육회가 처음으로 자체 선정한 한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는 수영 김우민(강원도청), 양궁 임시현(한국체대) 선수가 나란히 차지했다.



국기 '태권도'는 중주국 자존심을 세우며 효자종목으로 돌아왔다. 남녀 품새를 석권한 것을 포함해 금 5개, 은 2개,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세계를 호령하는 '펜싱' 검객들은 금 6개, 은 3개, 동 3개를 획득하며,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부터 4회 연속 종합 우승을 이뤘다. 중국, 홍콩 일본 선수들의 기량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값진 결과를 거뒀다.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은 대표팀 선배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제치고 남자 사브르의 새로운 황제로 떠올랐으며, 단체전도 휩쓸어 2관왕에 올랐다. 최인정(계룡시청)은 여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라스트 댄스'를 신나게 쳤다.

한국 '양궁'에서는 또 한 명의 신궁(神弓)이 탄생했다. 임시현(한국체대)은 리커브 여자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



(사진출처: 대한체육회)

3관왕을 차지하였다.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위업을 이뤘다. 한국 양국은 올림픽 종목인 리커브에 걸린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쓸며 난공불락의 아성을 공고히 쌓았다.

이번 대회에서 '수영'의 괄목할 만한 결과는 단연 돋보였다. 수영 경영대표팀은 금 6개, 은 6개, 동 10개를 합쳐 총 22개의 메달을 수집했다. 이는 역대 최고 성과를 올린 2010년 광저우 대회보다 금메달을 2개 더 따고, 일본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눌렀다. 게다가 14개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풍성한 결실을 봤다. 한국 수영을 이끄는 황선우(강원도청)는 금 2개, 은 2개, 동 2개를 획득하며 무려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민(강원도청)은 계영 800m, 자유형 400m, 800m를 휩쓸어 한국 경영 선수로는 세 번째로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에 올랐다. 남자 자유형 50m 지유찬(대구광역시청)과 남자 접영 50m의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도 금빛 역영으로 힘을 보탤다.

25세 이하, 프로 4년 차 이하 젊은 선수들로 팀을 꾸린 '야구'는 대회 4연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을 앞세운 '축구'는 3연패를 각각 이뤄 구기 종목의 자존심을 지켰다.

#감동 #드라마 #부산선수단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은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오른쪽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투혼의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국 선수로는 29년 만에 정상 탈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금메달이었다. 또한 단체전에서도 우승, 2관왕에 등극했다.

TV 프로그램 '몽쳐야 찬다'에서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여준



요트 조원우(해운대구청)는 본업에서도 활약해 남자 윈드서핑 RS:X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총 14차 레이스 중 12차 레이스에서 가장 적은 벌점(13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 지었다.

11년째 부산 사격의 간판선수로 활약 중인 하광철(부산광역시청)은 러닝타겟 남자단체·혼성단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2관왕에 등극했다. 하 선수는 "남자단체는 깜작 선물과도 같은 금메달이었다면, 혼성단체는 자신감으로 얻어낸 금메달"이었다며, "남자 러닝타겟은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지만, 언젠가 올림픽에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국 수영 황금기에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의 활약도 돋보였다. 접영 50m 결선에서 23.29초로 아시아경기대회 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솟아냈다. 백 선수는 "가까운 목표는 아시아 레코드를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헤아해지지 않고 빠르게 달려 나가 보겠습니다."라며 신기록을 향한 도전을 진행 중이다.

부산소속 7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18개 종목에 출전해

금 9개, 은 13개, 동 14개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활약을 펼쳤다.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부산선수단 #메달리스트 #영광의 주역

- **요트**            조원우·하지민(해운대구청)  
                      조성민, 김지아
- **사격**            하광철(부산광역시청)  
                      김상도·김종현·박하준(KT)
- **근대5종**        김세희(부산광역시체육회)
- **배드민턴**      안세영·김가은·김혜정(삼성생명 여자팀)  
                      김원호·서승재·강민혁(삼성생명 남자팀)
- **수영**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
- **다이빙**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
- **펜싱**           송세라·마세건(부산광역시청)
- **탁구**            임종훈·안재현(한국거래소)  
                      서효원(한국마사회)
- **세팍타크로**   김영철·이민주·최지나·한예지(부산환경공단)
- **산악**            노희주·최나우(패밀리산악회)
- **핸드볼**        이미경(부산시설공단)
- **자전거**        강서준(부산시설공단)
- **농구**            안혜지·이소희·진안(BNK)
- **역도**            손영희·김수현(부산광역시체육회)
- **축구**            최준(아이파크)
- **야구**            나균안·박세웅(롯데 자이언츠)
- **하키**            김은지·박승애·이유리(KT)

#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THE 104th NATIONAL SPORTS FESTIVAL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9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선수단의 활약이 돋보인 이번 전국체육대회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자.



## 종합순위 7위 (38,657점)

6대 광역시 중 1위 제97회 대회 이후 7년 만에 달성  
제103회 전국체육대회(2022) 대비 총득점 503점 상승



### #최고의 기량 #최상의 성적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전라남도 일원(목포종합경기장 등 70여 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는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었으며, 17개 시·도 선수단 총 29,935명이 총 49개 종목(정식종목 47, 시범종목 2)에 참가해 진검승부를 펼쳤다.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폐막 이후 5일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만큼,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롤러, 사격, 수영(경영, 다이빙), 양궁, 육상(트랙, 필드), 핀수영 종목에서 대회 신기록이 78건이나 쏟아져 나왔으며, 한국 신기록도 8건 달성했다. 그중 부산선수단인 수영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의 활약이 돋보였다.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세운 한국 신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며 맹렬한 활약을 펼쳤다.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역도 87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혜정(고양시청)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용상 170kg에 성공해 한국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다관왕 선수도 다수 배출되었다. 5관왕 5명, 4관왕 13명, 3관왕 30명, 2관왕 169명이었으며, 최다관왕은 체조 문건영(광주체육고)으로 무려 7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최우수선수상(MVP)은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강원특별자치도청)에게 돌아갔으며, 전국체육대회 3회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회 종합우승은 경기도(총득점 6만 4,856점)가 차지하였다.



## 숫자로 알아보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결과

<b>종합순위</b>  <b>7위</b>	<b>총득점</b>  <b>38,657점</b>	<b>메달</b>  <b>187개</b> (금 46, 은 64, 동 77)	
<b>종합입상</b>  <b>8개 종목</b>	<b>종합우승</b>  <b>세팍타크로, 사격 승마, 에어로빅·힙합, 요트</b>	<b>2위</b>  <b>배드 민턴</b>	<b>3위</b>  <b>택견 근대5종</b>

### 다관왕

- 3관왕** 에어로빅·힙합 류주선(부산광역시체육회)
- 2관왕** 배드민턴 강민혁·김원호(삼성생명) 사격 김상도·박하준(KT) 수영 이송은(사직고)  
에어로빅·힙합 김한진·김현지·윤창일(부산광역시체육회)·김지윤(부산동여고)  
역도 김수현(부산광역시체육회)·임가원(부산체고) 핀수영 서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

### 주요사항

- 종합우승: 세팍타크로(6연패), 요트(3연패), 사격(2연패), 에어로빅·힙합(2연패), 승마
-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 **4년 만에 남·여 동반 우승**
- 수영 백인철 선수(부산광역시 중구청) 접영 50m **한국 신기록 23.15초**

### #래거 #성황리 #부산선수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선수단의 전국체육대회 활약을 응원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지난 10월 5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 유창준 경기력향상위원장이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남은 기간 부상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일(화)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오선 여성체육위원장이 체육회관을 방문하여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격려금을 전달하며 선전을 응원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컨디셔닝 현장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이에 부산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맹활약을 펼치며 래거를 거두었다. 종합순위는 7위, 6대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총득점은 3만 8,657점 ▲메달 187개(금 46, 은 64, 동 77)를 기록했다. 부산은 총 47개 종목 중 ▲세팍타크로 ▲사격 ▲승마 ▲에어로빅·힙합 ▲요트 등 5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세팍타크로팀은 전국체육대회 6년

연속 최정상에 올랐으며, 4개 종목 중 3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는 4년 만에 남·여 동반 우승하는 래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최인정(계룡시청)에 패해 은메달을 획득한 펜싱 에빠 송세라(부산광역시청)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수영 백인철(부산광역시중구청)은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접영 50m 금메달에 이어 금빛 질주를 이어나가며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에어로빅·힙합 류주선(부산광역시체육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관왕을, 이 외에 12명의 선수가 2관왕을 차지하는 등 부산선수단은 눈부신 래거를 거두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쓰고 이 분위기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이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세계 정상을 향한 출발점

#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미래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일 인재들이 모이는 전국소년체육대회.

1972년에 처음 개최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늘날까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 선이의 경쟁 속 눈부신 활약

지난 5월 27일(토)부터 30일(화)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육상, 수영, 축구 등 3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17개 시·도에서 1만 8천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청소년들이 선이의 경쟁을 펼치며 우의를 다지고,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축제의 장이다. 또한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산초·중학생체육대회를

통해 대표 선수를 선발하였으며, 선수 693명, 임원 388명 총 1,081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꾸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꿈나무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부산선수단을 응원하였다. 이에 부산선수단은 당초 목표하였던 금메달 20개 이상 획득을 비롯해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 도약

부산선수단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태권도, 펜싱, 에어로빅, 수영, 조정, 씨름, 유도, 역도, 양궁, 복싱, 테니스이다. 이 중 수영은 신기록까지 달성하며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수영에서 공건 선수가 13세 이하부 배영 50m(31.76초)와 자유형 50m(28.34초), 박우민 선수가 16세 이하부 접영 100m(55.19초)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수영의 공건(분포초), 펜싱 플러레 개인 및 단체전의 김민결(여명중), 역도 합계 및 용상 120kg급 이상의 조성찬(동의중) 선수가 각각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부산선수단의 눈부신 성과를 견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미 있는 활약도 있었다. 체조에서는 남자 중등부가 기계체조 단체종합 종목에서 무려 20여 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핸드볼 종목은 10년 만에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더욱이 핸드볼 종목은 4강으로 이끈 인지중 학교는 2명의 주니어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34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메달 22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40개 총 8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과 다양한 기록을 남기며 부산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확인시켜 주었다.

추운 겨울, 동계스포츠 축제의 뜨거운 열기로!

##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4일간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전년 대회(4,056명)보다 더 많은 4,210여 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해 동계스포츠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사진출처: 부산광역시스키협회)

### 동계 스포츠인의 최대 축제

제104회 동계체육대회는 서울, 경기, 강원, 울산, 경북 등 5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대회는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컬링, 바이애슬론 등 정식 5종목과 루지, 봅슬레이 스킨레톤(스타트), 산악(아이스 클라이밍) 등 시범 3종목을 포함해 총 8종목이 진행되었다. 총 836개의 메달을 걸고 진검승부를 펼친 끝에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메달 합계 285개, 종합점수 1,396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개·폐회식은 따로 열리지 않았으며, 2월 22일(수) 종합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세계 정상에 오른 김민선(의정부시청) 선수가 선정되었다. 김민선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1,000m 대회신기록과 팀추월(6주) 우승을 차지하였다.

김민선 선수는 “우선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회인 동계체전에서 MVP를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동계체육대회는 개인적으로는 대회신기록을 갱신하게 되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자료출처 : 대한체육회)

### 부산 종합 5위, 스키 종목 활약

부산선수단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8개로 역대 최대 메달인 총 35개를 획득했다. 16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는 쾌거도 거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시 스키선수단의 활약이 돋보였다. 크로스컨트리 종목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 4관왕, 허부경(부산진여고) 3관왕, 알파인 종목 강영서(부산광역시체육회)가 3관왕을 차지하며 다관왕 배출은 물론, 금메달 10개 모두 스키 종목에서 획득하는 기염을 쏘아냈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 1월 스키실업팀(부산광역시체육회)을 창단한 이래 광역시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수 육성 및 우수한 지도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3일(목)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스키, 빙상, 컬링 종목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종목에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크로스컨트리 4관왕을 달성한 이의진 선수에게 MVP를 수상했다.

##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결과

종합 5위 (16년 연속)



다관왕

4관왕 : 크로스컨트리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 - 클래식 5km,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

3관왕 : 스키알파인 강영서(부산광역시체육회) - 슈퍼대회전, 회전, 복합

크로스컨트리 허부경(부산진여고) -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

###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한마당

#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난 4월 27일 개최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되어 더욱 뜻깊었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 생활체육인, 꿈을 펼치고 추억을 쌓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쳐 성취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정을 나누며 멋진 추억을 쌓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 2016년 이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 이름으로 주최하고 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 17개(정식 14개, 시범 3개) 종목으로 시작하여 2002년 충청북도에서 27개(정식

25개, 장애인 2개) 종목, 2003년 경상남도에서 33개(정식 28개, 시범 3개, 장애인 2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 종목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는데, 2012년 대전광역시와 2015년 경기도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무려 5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개최 때마다 2만 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생활체육인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연중행사로 2019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었다.





#### 4년 만에 정상 개최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으며, 2022년에는 종목별로 개별 개최하였다. 그러다 올해, 무려 4년 만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정상 개최되었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에서 진행되었으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경상북도에서 개최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경상북도는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를 만들고자 주최지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먼저, 개최식은 시도 선수단을 비롯해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 및 환영사를 전하였으며, 구미시립무용단, 가수 송가인 등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고조시켰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3개(정식 40개, 시범 3개) 종목의 경기에 전국 17개 시도 21,43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격전을 벌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웠던 한일생활체육교류가 재개되면서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30여 명이 축구, 배구 등 9개 종목에 출전하여 생활체육 교류와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폐회식에서는 질서상, 성취상 등 총 6개 부분의 시상과 축사, 공연, 차기 개최지 울산광역시에 대회기 전달 등이 진행되었다.



#### 부산선수단의 눈부신 선전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부산선수단은 36개 종목에 선수 1,170명, 임원 130명 총 1,300명이 참가하였다. 부산선수단은 그동안 같고닮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10개 종목이 종합 3위 이내에 입상하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에어로빅힙합, 체조, 풋살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골프, 당구, 우슈, 철인3종이 준우승을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국학기공, 수영이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에어로빅·힙합은 3개의 세부 종목 중 2개 종목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고, 체조는 5개 세부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1위, 1개 종목에서 3위를 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다. 풋살은 4개의 세부 종목 중 2개 종목에서 1위, 1개 종목에서 2위를 하였다. 비록 종합 순위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이 외에도 부산선수단은 각 종목에서 우수한 실력을 뽐냈다. 골프, 당구, 수영, 스쿼시, 씨름, 육상, 자전거, 태권도, 합기도 등의 세부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부산선수단은 내년에 열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기억하며 4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3종목

##### 정식종목(40)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등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사격, 소프트테니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힙합, 요트, 우슈, 육상,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족구, 줄넘기, 철인3종,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합기도

##### 시범종목(3)

빙상, 줄다리기, 핸드볼

# 부산시민을 하나로, 부산 생활체육 최대 축제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시민생활체육 전국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부산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매년 9~10월에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역사 깊은 축제다. 이번 대회부터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부산시민체육대축전'으로 행사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하루에서 1박 2일 행사 일정으로 확대해 부산시민과 동호인이 함께하는 명실상부 시민 체육 축제로 거듭났다.

###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주관 :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일자 : 2023.9.23.(토)-24.(일) / 전야제 9.23.(토)

장소 : 종합운동장 조각공원 등 종목별 경기장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한 전야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의 최대 축제인 부산시민체육대축전 9월 23일(토) 전야제를 시작으로 성대한 포문을 열었다. 식전 행사에는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과 ‘소리숲 공연’, ‘프로댄스스포츠’ 공연이 펼쳐졌다. 이후 부산의 총 16개 구·군의 선수단 입장으로 화려한 전야제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수영구에서 선보인 선수단 입장에서 로봇 드론을 통해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알리는 현수막을 띄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멋진 장면을 연출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와 16개 구·군, 구·군체육회 등 모두가 합심해 부산시 최고의 체육 행사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참석해 오렌지색 축구공에 사인을 하며 작은 퍼포먼스를 선보여 시민들의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다.

야외 행사로는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존 등 각종 부스를 통해 행사장을 찾은 부산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체육축제가 다시 진행되어 기대가 크고 이번 기회로 다시 부산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감동적인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뜨거운 열정, 부산 생활체육 한마당**

9월 24일(일)에는 생활체육인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사직실내체육관을 포함한 11개소에서 종목별 경기가 열렸다. 운영 종목은 검도, 국학기공,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체조, 탁구, 태권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줄넘기, 축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6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16개 구·군 대항전으로 펼쳐졌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정적으로 대회에 임했다. 그 열기는 고스란히 관중으로 전해져, 뜨거운 응원의 향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회 결과 경기력상은 북구체육회가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성취상은 연제구체육회, 질서상은 수영구체육회, 화합상은 강서구체육회, 대회 운영 우수단체는 그라운드골프협회와 줄넘기협회가 각각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앞으로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시민 화합의 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결과**

대회 결과	경기력상	성취상	질서상	화합상	대회 운영 우수단체	
	북구체육회	연제구체육회	수영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	그라운드골프협회	줄넘기협회
건강상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종목별 우승	검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줄넘기	체조
	북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남구	사상구
	국학기공	탁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당구
	사하구	북구	연제구	북구	동래구	영도구
	볼링	축구	파크골프	태권도		
	기장군	기장군	북구	사하구		

여성체육의 찬란한 꽃을 피우다

# 제18회 여성체육대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파워풀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부산 여성 동호인들.  
그동안 쌓아온 결실을 꽃피우기 위해 마련한 축제, 제18회 여성체육대회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제18회 여성체육대회

-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 주 관**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일 시** 2023.6.1.(목) 08:00~17:00
- 장 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외 5개소
- 참가인원** 16개 구군체육회 6개 종목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 1,200명

## 부산 여성 동호인의 생활체육 축제

부산 여성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8회 여성체육대회가 6월 1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여성체육대회는 부산 여성 동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등 5개소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6개 종목(국학기공, 탁구, 테니스, 볼링, 배구, 체조)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탁구, 배드민턴) 1,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돼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 대회가 여성 동호인들의 따뜻한 정과 건강한 활력으로 모두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회 결과 - 종목별 우승

▷ 16개 구·군체육회 6개 종목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교실 2개 종목

<b>국학기공</b> 연제구 	<b>체조</b> 남구 	<b>탁구(교실)A</b> 성문예 김경숙	<b>탁구(교실)B</b> 전미향 안영숙	<b>탁구(교실)C</b> 백수연 김순옥
<b>배구</b> 북구 	<b>테니스</b> 부산진구 	<b>배드민턴(교실)A</b> 박훈희 유영숙	<b>배드민턴(교실)B</b> 문진영 양서현	<b>배드민턴(교실)C</b> 노은주 이승주
<b>볼링</b> 수영구 	<b>탁구</b> 사상구 			

고령화 시대의 스포츠 모델

#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부산 어르신들! 운동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산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축제,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현장으로 떠나보자.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일 시** 2023.5.12.(금) 09:00~17:00  
**참가인원** 9개 종목 1,500명

**주 관**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장 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외 6개소

## 부산 어르신 동호인의 생활체육 축제

5월 12일(금) 오전 9시,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등 6곳에서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어르신체육대회’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간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대회 규모로 정상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국학기공,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체조,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9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쟁을 펼쳤다. 아울러, 고령임에도 여전히 체육활동으로 건강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별 최고 연장자에게 매년 ‘최고 어르신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최고 어르신상 명단**  
 남 파크골프 94세 최순홍    여 게이트볼 89세 박정희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어르신 동호인이 참가한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회 결과 - 종목별 우승

국학기공  
연제구



체조  
서구



게이트볼  
해운대구



그라운드골프  
남구



배드민턴  
사상구



축구  
기장군



탁구  
수영구



테니스  
해운대구



파크골프  
사상구





**2023**  
**BSC 뉴스**

##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사업에 선정되어 5억 8천만 원 상당의 전문장비와 매년 3억 3천만 원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2월 9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1층에서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스포츠 생리·역학·심리·측정 등 분야별 박사급 연구진과 측정요원, 전문 트레이너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동부하검사, 등속성근관절검사, 무산소성 파워 검사, 젖산분석, 영상분석 등 29종의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운동 능력을 측정·분석하여 지역선수들에게 과학적인 체력분석 및 개인맞춤형 운동처방과 심리검사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도자, 선수,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포츠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스포츠과학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종목별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부산지역 전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스포츠과학센터 부설 스포츠헬스케어센터와의 선순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종목별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과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부산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16년 연속 종합 5위 성과 · 크로스컨트리 4관왕 이의진 선수 MVP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3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동계스포츠 종목 임원, 선수,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은 금 10, 은 7, 동 18개로 총 35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다 메달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종합점수 464점으로 16년 연속 종합 5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종목별 성적에서는 스키, 빙상, 컬링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여 표창패를 수상하였고, 개인 성적에서는 크로스컨트리에서 4관왕(클래식 5km,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을 달성한 이의진 선수가 MVP를 수상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어려움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환경 속에서도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분들의 지원과 지도자 및 선수들의 남다른 열정,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24km 코스 500명, 45km 코스 1,200명 참가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4월 1일(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9년부터 개최한 부산시민자전거대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마련한 대회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4월에 즈음하여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연령이 참가하였으며, 순위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로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하였다. 처음 대회에 참가한 한 동호인은 “아름다운 낙동강 경관과 시원한 강바람을 느끼며 라이딩하여 도심을 벗어나 힐링할 수 있었고, 안전을 위해 코스 내 주요 위험구간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고 호평하였다.

본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모두 소중한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지도 동영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수상

지도 동영상 및 지도교안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쾌거

2023년 2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7주간 대한체육회에서 진행되었던 2022년도 지도 동영상 및 지도교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의 지도 동영상이 전국 228개 구·군체육회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현장지도 수에 따라 각 시·군·구별 지도 동영상을 제작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의 1차 심사를 거쳐 대한체육회의 체육계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된 심사위원단의 2차 결과와 회원종목단체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의 지도 영상은 헬스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기구 사용법과 단계적 트레이닝 영상으로 누구나 영상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사하구체육회의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며, 지난 2년간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지도자의 비대면 지도 활동을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 영상중계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4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550여 명 참가

4월 20일(목) 부산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34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가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소속 59개 클럽 55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시민게이트볼대회는 부산지역 게이트볼 동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동호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 결과, 우승 북구 수정팀, 준우승 중구 중구2팀, 공동 3위는 동구 복팀, 사상구 주례팀이 차지했다. 또한 최우수선수상은 북구 허재복, 김정자 선수가, 최고령 어르신상은 최고령 참가자인 류한열, 정한준 선수가 수상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맞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육활동으로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일상의 회복과 체육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2023년 회원단체직무연수 개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127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4월 25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의 업무능력 향상과 스포츠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2023년 회원단체직무연수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직무연수는 16개 구·군체육회와 76개 회원종목단체의 실무책임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실무교육과,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를 초빙한 전문교육이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회원단체 실무자들에게 사례 중심의 행정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더불어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여 스포츠계 폭력 예방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책을 체육회와 회원단체가 같이 힘써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공공기관·단체 26개 팀, 700여 명의 직장 축구 동호인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5월 13일(토)부터 14일(일) 양일간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축구장에서 공공기관·단체 26개 팀, 700여 명의 직장 축구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Expo-Kick Match 축구대회는 2022년 처음 시작되었다. 직장 축구동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직장동료 간 우정의 장을 마련하고 신체적, 정서적인 발육발달을 도모하는 장을 열었다.

대회 결과 부산소방재난본부팀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부산경찰청팀은 준우승, 부산광역시청팀과 부산교통공사팀은 공동 3위를 각각 차지하여 대회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금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영남지역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스포츠로 하나 된 이번 행사에 의미가 뜻깊다.”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어 건강한 직장 생활과 여가선용은 물론 기관 간의 상호교류 및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대한체육회,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체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5월 18일(목) 구·군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지역체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체육회에서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경과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 사항 ▲생애주기 스포츠활동 지원 계획 ▲스포츠클럽 관리체계 구축 계획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체육계 중점과제 및 주요 현안을 설명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에서는 ▲스포츠클럽 등록 관련 개선안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규정과 징계 규정의 상충 문제 ▲지방체육단체 행정요원 인건비 지원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민선2기 체육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성 있게 추진할 것이며, 촘촘한 스포츠 복지 도시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체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제4회 부산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 개최

부산관내 초·중학생 선수 200명 참가,  
아쿠아슬론대회 방식으로 진행

6월 3일(토) 제4회 부산초·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대회가 부산국민체육센터와 구덕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어린이·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재능있는 지역 꿈나무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대회는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아쿠아슬론대회(수영, 달리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관내 초·중학생 선수 200명과 학부모·지역동호인 200여 명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쟁과 관계없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는 “지난해 대회에 참가하였으나 개인적으로 기록이 아쉬워 이를 만회하고자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여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는 후기를 전하는 등 챌린지대회가 학생들에게 철인3종 종목을 보급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학생들에게 스포츠문화를 보급하는 것은 평생(생애주기) 스포츠활동에서 큰 역할을 함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선수들은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철인3종협회가 연계하여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꿈나무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3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26개 종목 초·중학생 150명 장학금 전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미래의 체육인재 육성과 꿈나무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 14일 (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2023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선수 등 부산체육의 미래가 촉망되는 26개 종목 초·중학생 150명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1명당 각각 100만 원씩 전체 1억 5천만 원 규모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꿈나무 육성사업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장학사업의 결과로 부산선수단은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적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개의 대회신기록과 3명의 다관왕 선수, 2명의 최우수선수를 배출하였고,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참가 이후 최다 메달 획득(총 25개) 등 16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며 선수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회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꿈나무 선수 육성과 저변확대는 물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육성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등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체육사랑카드 발행 협약 및 1호 카드 전달식

### 전국 최초 체육인을 위한 특화카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8월 1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BNK부산은행과 ‘부산체육사랑카드’ 발행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호 카드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한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체육활동에 특화된 혜택으로 지정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부산 관내 공공체육시설(44개소)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이후에는 민간체육시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방법 및 등록 완료된 체육시설 현황은 부산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도 ▲스포츠업종 10% ▲병·의원/약국 10% ▲학원/건강식품/생활(간편결제/편의점/커피) 5%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월간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SPORTS is BUSAN’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체육사랑카드’가 출시된 만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복지로 행복도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 진행

### 소외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 다양한 레포츠 경험 제공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이 8월 3일(목)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진행되었다. 레크리에이션교실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매년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소외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이 클럽 활동으로 활발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3 레크리에이션교실 참가자는 부산관내 복지관 및 돌봄센터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체험은 지도 강사의 지도하에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연습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체험 진행 시 레포츠를 처음 접하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실내빙상장 사전 답사를 통해 위험 요소 및 응급의료체계 확인, 구급함 준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에 참가 청소년들은 빙상의 재미를 느끼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레크리에이션교실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앞둔 부산체고 선수단 선전 기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8월 24일(목)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부산체육고등학교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22개 종목에 학생 184명(남 132명, 여 52명), 감독 및 지도자 48명 등 총 232명이 참가한다.

이날 부산체육고등학교 전국체육대회 예상 전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세팍타크로, 근대5종, 복싱, 자전거, 수영 등의 선수단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격려금 1,000만 원과 이온음료 1,000병을 전달하며 전국체육대회 선전을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전라남도 목포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월 19일(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여 다시 한번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2023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부산광역시 씨름동호인 200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9월 9일(토)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남·여 최고장사를 가리는 2023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부산씨름왕선발대회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대회로 남자 3개부(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여자 3개부(60kg 이하, 70kg 이하, 80kg 이하)에 약 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개장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씨름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여가 스포츠로 정착하기 위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통종목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체육계 인사 등 600여 명 참석, 결의 다지는 시간 가져

부산광역시체육회는 9월 19일(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하고 부산대표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필승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구·군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등 체육계 인사, 선수 및 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결단식은 참가 준비상황 보고, 선수단의 강화훈련 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였고 이어 선수대표로 김민규 선수(검도·부산광역시체육회)와 윤예린 선수(육상·부산체고)가 나와 대표선서를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동안 구슬땀을 흘려 노력 해온 선수와 지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전국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도 부산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부산을 대표하여 국위를 선양할 우수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펜싱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육상 윤예린(부산체고) 등 개인종목 선수들의 선전과 야구(부산고), 에어로빅합합(부산광역시체육회) 등 단체전 종목의 선전을 기대 중이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부산은 육상 등 49개 종목 1,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 제12회 부산초·중학생 육상 챌린지대회 개최 부산관내 초·중학생 선수 650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9월 23일(토)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제12회 부산초·중학생 육상 챌린지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2012년부터 기초종목의 저변확대와 어린이·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재능 있는 지역 꿈나무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비등락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한 학생들은 남초·여초·남중·여중 4개부로 나뉘어 총 12개 종목(38개 세부 종목), 개인을 비롯한 단체(학교, 스포츠클럽 등)별 대항전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육상은 스포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본 대회를 통해 부산지역의 육상 저변확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육상연맹과 함께 재능 있는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여 육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 초·중·고 학교운동부 및 대학생활체육동아리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초·중·고·대학 28개교 44개 팀, 총 2.5억 원 지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1월 8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초·중·고 학교운동부 및 대학생활체육동아리를 대상으로 운동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방비와 국비, 부산도시가스 기업후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8개교 44개 팀을 선정, 총 2.5억 원 규모의 훈련 장비(용품)를 지원하였다.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용품 지원 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도시가스는 2020년부터 학교운동부 장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 2회째 진행된 대학생활체육동아리 용품지원 사업은 부산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7개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매년 지원금액과 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학교운동부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상생을 통해 부산체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 하지민 선수 MVP 수상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1월 13일(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 46개, 은 64개, 동 7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7위, 광역시 중에서는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우승(요트·에어로빅합합·세팍타크로·사격·승마), 종합 2위(배드민턴), 종합 3위(근대5종·택견)를 차지한 종목에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고등부 남·여 동반 우승을 이룬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가 단체 MVP를, 1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해운대구청 요트팀 하지민 선수가 개인 MVP를 수상하였다.

또한,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약한 하광철(사격), 백인철(수영), 조원우(요트) 등 출전 선수를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금 9개, 은 13개, 동 14개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활약을 보여주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분들의 지원과 지도자 및 선수들의 남다른 열정,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부산광역시체육회-호찌민시 스포츠교류 MOU 체결 전지훈련 유치 및 체육정보·청소년스포츠·회원종목단체 간 교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1월 29일(수) 부산시 자매도시인 베트남 호찌민시와 스포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맺은 국제도시 간 스포츠 교류 MOU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찌민시와의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전문체육 선수단 전지훈련, 청소년스포츠교류, 각 종목별 회원단체 간 스포츠교류로 글로벌 스포츠 마인드 함양과 함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대가 된다. 또한 문화, 교육, 관광 등 다방면의 폭넓은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의 새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교류단에는 부산·호찌민 친선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태권도와 탁구 종목 임원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함께하여 도시 간 종목단체 교류 및 우호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MOU를 체결한 호찌민시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 및 도시들과의 스포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3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 개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과 부산체육미래발전 방향 모색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2월 12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부산관내 스포츠에 관심 많은 체육 관계자, 구군체육회 지도자,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스포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부산체육 미래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 및 부산체육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3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준비와 자세’와 ‘2024년 부산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 및 각 섹션별 참석자들과 핵심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부산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무한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도 다변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스포츠 복지로 행복한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통해 부산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스포츠인을 비롯해 교육계, 정계인사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만난

# 스포츠인



동계체육대회



궁도동호회 사직정



인라인스케이팅동호회 노블인라인클럽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펜싱부



부산광역시청 축구동호회



서평동호회 팀 서프파크



부산고 야구부



자전거동호회 일사모팀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



부산광역시체육회 에어로빅합팀



수영 백인철 선수

# 척추·관절



| 척추·관절 | 척추측만증 | 척추 재수술 | 스포츠재활  
| 통증·도수치료 | 뇌·신경질환 | 양방향척추내시경

☎ 대표전화 | 1544-758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4  
광안(박원욱병원) 5번 출구 앞

박원욱병원

www.parkspine.co.kr



## The new GLE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 The new GLE 차량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스타자동차에서 만나보세요.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대표번호 1688-2369(berz)  
홈페이지 www.mbstar.co.kr

진시점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금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선로 83번길 (달동)  
기정 051-901-2390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B1

인릉중고지

사적 051-775-9820 부산 연제구 경기장로 21  
울산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선로 83번길 (달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주| 원인베스틸  
경남 창원군 창녕읍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ING FUTURE**  
|주| 원인인터내셔널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s.com>

**TRANSFORMING FUTURE**  
|주| 동일철강  
부산시 사상구 학정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9655  
<http://www.dongilsteel.com>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로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레스트 제공

###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 지구를 살리는 특 특 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특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사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